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눈을 떴는데 오전 11시 45분이었다. 분명 9시에 알람이 울렸지만 어제 이곳저곳 다녀온 피곤함 때문인지 대충 끄고 다시 잠들어버렸나보다. 난 일 없는 휴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일어나던지, 오후가 되어서 일어나던지 상관없었다. 그렇지만 평일에는 7시간 수면시간을 지키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는데 월요일부터 늦잠을 자버려서 눈을 뜨고 시계를 보자마자 기분이 상했다.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버리면 하루를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대충 씻었다.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작은 접시에 밥과 반찬 조금씩을 덜어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지 않는 TV를 보면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양치하고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어제는 일요일이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실컷 놀았으니 오늘은 꼭 10개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약 12시 30분부터 계속 인터넷강의를 들었다. 중간에 엄마가 깎아주신 사과와 참외를 먹기도 하고 너무 졸려서 옆드려서 자기도, 책상 벽에 기대서 자기도 했다. 졸음이 깨고 나니 늦잠까지 잔 주제에 꾸벅꾸벅 조는 내가 한심해졌다. 4월 시험 불합격의 경험이 있어서 인터넷강의까지 듣는 건데 말이다. 이번 6월에는 꼭 붙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서도 공부는 진짜 하기 싫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을 먹었다. 어제 시골에서 가져온 재료로 엄마가 많은 반찬을 요리해놓으셨다. 장어탕, 취나물, 미나리무침 등등 ,, 약 반공기 정도 저녁을 먹고 평소보다 양치를 더 신경 써서 했다. 난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기 때문이고 내일 치과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양치까지 다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 저녁 7시 30분 정도가 되어있었다. 이제 좀만 기다리면 군인인 남자친구에게 전화 올 시간이다. 어제 전화를 못 받아서 오늘은 꼭 받아야지.

하지만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7시3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꼭 전화가 오는데 오늘은 오지 않았다. 원래 항상 매일 최소 15분에서 1시간까지 통화를 하지만 가끔 이렇게 업무가 바쁜 것 같은 날에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 8시 30분이 넘은 걸 확인하고 나서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을 책상 구석 아무데나 던져놓았다. 가끔 있는 일인데 오늘은 특히 마음이 더 답답하고 외로웠다. 벌써 군인인지 1년 5개월이 되는데도 가끔 통화를 못하게 되면 우울한건 외로움을 잘 타는 내겐 어쩔 수 없나보다. 내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지. 다시 남은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오늘 공부를 다 마쳤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다음 주에 약속을 잡고, 내일을 위해 머리를 감고 습관적으로 에센스를 바르고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잔잔한 노래 플레이어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했다. 그리고 계속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일기를 쓰는 중이다. 평소에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 하면서 일기를 쓰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잔잔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일기를 쓰니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나쁘지 않다. 이젠 오늘의 하루도 슬슬 마무리하고 오늘과 별 다를 바 없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스트레칭 겸 운동하고 침대에서 책도 30분간 읽고 자야겠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자.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수고했어! 사랑해~